

美國 浪漫主義와 “超人”의 神話

申 正 鉉

〈서울大 英文學科〉

Ⅰ

역사적으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전반은 Kant, Blake, Wordsworth, Coleridge, Shelley, Nietzsche같은 낭만주의자들이 전례없이 인간성의 속박을 느끼고,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인간형을 창조했던 “초인”의 시대였다. Kant, Blake, Shelley가 “순수이성”의 사슬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요구했고, Coleridge와 Wordsworth는 감성의 인식상의 수동성을 거부했으며, Nietzsche는 인간의지의 속명적 비극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념에 저항했다. 그들은 각자 시대의 이념적 속박을 거부하고 감성과 이성에 능동성·창조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지가 개인의 실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가를 보여주는 “초인”이라 불리울 인물들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Milton, Prometheus, Zarathustra라고 명명되었다.

19세기의 미국인들도, 일반적 맥락에서 보면, 이 시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딜레마였던 “어떻게 하면 기존의 가치체계에 의한 인식·판단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인가”하는 “최후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낭만주의자들을 괴롭혔던 또 다른 하나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문화적 예속 상태를 벗어날 것인가”라는 “노예의 딜레마”였다. 이 두 딜레마들은 미국 낭만주의자들의 철학적 대전제들이었으며, 특히 후자는 미국 낭만주의 속에서 태어나는 “초인”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19세기 미국인들이 직면했던 이러한 철학적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문학속에 용해시켰던 문인들은 Poe, Hawthorne, Melville등의 인간의 파괴적 속성을 믿는 작가들과 Emerson, Thoreau, Whitman등의 인간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작가들이었다. 진자들이 전통적 비극의식——특히 청교도의 원죄설과 예정설에 기인하는 비극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들도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깊이 회의하고 거부하는 Ishmael같은 “초인”을 창조해냈다.¹⁾ 그러나 보다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초인”의 창조에 관여했던 작가들은

1) 초인을 기존의 가치체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Ahab이 “선”과 “악”을 명백히 양분하고 악의 소멸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청교도적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인데 반하여 Ishmael은 기존 가치체계의 표상인 사회로부터 자아를 고립시키고, 자아발견의 기회를

Emerson을 필두로 하고 Thoreau와 Whitman을 포함하는 “초월주의” 문인들이었다. 그들은 Coleridge를 포함한 많은 낭만주의자들의 지대한 과제였던 “순수이성”의 인식상의 한계—즉 감각은 인식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단순한 매체라는 Locke와 Decartes의 인식론의 한계—를 신의 섭리에 감응하는 감성인 “직관”이라는 인간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극복하고, 청교도적 세계관이 미국 대륙과 만남으로써 형성된 도덕적 이상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미국인 특유의 “초인”형을 창조해냈는데, 이것이 곧 “미국인 학자” 또는 “시인”의 이미지이다.

Emerson, Thoreau, Whitman이 만들어낸 “미국인 학자”의 신화의 창조과정은 미국문학사의 중요한 장의 일부로서, 당대 미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청교도주의, 합리주의, 유니테리언리즘과 같은 사고·가치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이들의 관련성을 해부하고 Emerson과 Thoreau가 창조해낸 인간형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식적 문제와 문체론적 문제가 당연히 논의되어야겠지만, 이 문제들은 별개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창조된 인물의 심성의 문제만을 다룰 것이다.

II

Emerson, Thoreau, Whitman은 T.S. Eliot의 눈에 비친 William Blake처럼 “물개성적 관념들”²⁾의 맹목적 습득을 거부하고, “타인의 의식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의식”³⁾을 추구하면서 시대가 그들에게 부여한 청교도주의, 합리주의, 유니테리언리즘같은 관념체제들을 거부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Emerson의 시대를 지배했던 관념체제들이 인간성의 어떤 측면들을 축박하고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청교도주의는 원죄설에 기초한 비극의식과 극도의 자아중심적 사고로 미국인들의 관념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들의 감정적 욕구를 상당히 제한해 왔다. 물론 그것의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Winthrop과 Mather 같은 청교도들이 교회

만들며, 고통스러운 통과의례를 거쳐 “악”은 “선”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악”을 소멸 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선”도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기성사회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초인이다.

2) T.S. Eliot, “William Blake,” in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76), p. 319.

...his [the artist's] education is one that is hindered rather than helped by the ordinary processes of society which constitute education for the ordinary man. For these processes consist largely in the acquisition of impersonal ideas which obscure what we really are and feel, what we really want, and what really excites our interest. It is of course not the actual information acquired, but the conformity which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is apt to impose, that is harmful. ... He [Blake] was naked, and saw man naked, and from the centre of his own crystal. ...He approached everything with a mind unclouded by current opinions. There was nothing of the superior person about him. This makes him terrifying.

3) T.S. Eliot, “The Function of Criticism,” in *Selected Essays*, p. 311.

라는 획일적 매체를 통해서 접신(接神)하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영적 경험을 성스러운 것으로 승화시키며, 자아 속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식의 밑바닥을 열심히 들여다 보았다면, 그것은 역사를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여 그것을 경험조직에 이용하는 창조적 방법들 중의 하나를 가르쳐준 것이다. Sacvan Bercovitch에 따르면 이 습성이 미국 문학의 상징주의를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었고, Cotton Mather에서 Emerson, Thoreau, Whitman, Melville을 거쳐 현대 작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떨칠 수 없는 국민적 욕구로 되었다.⁴⁾ 이것은 또한 Ormond Seavey가 “청교도적 무의식”이라는 짧은 논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바로 그 기초이기도 한 것이다.⁵⁾

청교도 정신의 이러한 창조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선조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 가져왔던 교리는 신·인간·자연· 역사를 해석하는데 극도의 편협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현현(顯現), 재림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재생신화는 신의 절대적 권능과 인간의 불완전성·사악성을 강조하는 예정설에 의해 인간의지의 신에로의 완전한 종속을 표현하는 신화로 바뀌었고, 그 예정설은 곧 청교도들에게 지극히 곤혹스런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즉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다.

예정설은 미국 역사에 이념적 비극을 연출했다. Robert Lowell의 “Mr. Edwards and the Spider”의 일절은 그들의 비극의식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신이 너를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가
 마치 네가 거미를 잡듯이
 너의 영혼을 파괴하고, 혼란시키며, 혼미시킨들 어찌라.
 (“Mr. Edwards and the Spider”)

영원한 저주와 위협에 처해 있는 영혼 앞에서 그들은 극기와 속고에서 나오는 “내면의 빛”에서 보다는 실용적 의식구조 속에서 감상적·자기 중심적 해답을 찾았다. 자연은 아담의 타락으로 자의적이고 파괴적 속성을 갖게 되어 생성·윤희·재생력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섭리의 역사”)는 오직 하느님의 불가해한 “위대한 계획”을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곧 지상의 번영이 천상의 구원의 증표라는 해답을 얻어냈고, 이것은 19세기에 와서는 노예소유제도까지를 합리화하는 산업자본주의를 배태시켰는데,⁶⁾ 이는 청교도적 인간관·자연관·역사관과 함께 Emerson의 세대들이 반역하게 되는 이념체계들이었다. *The Scarlet Letter*에서 Hawthorne이 Pearl을 묘사

4) Sacvan Bercovitch, *The Puritan Origins of the American Self* (Yale University Press, 1976), p.

5) Ormond Seavey, “Our Puritan Unconscious” in *The Nation* Vol. 222, (June 26, 1976), p. 789.

6) 참조. Mar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 Talcott Parsons (New York: Scribner, 1930); R.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26).

하며 보여주는 아이러니컬한 시선은 청교도적 자연관에 대한 거부 의 한 예이다.

Pearl의 야릇한 표정에 익숙해지자 Hester는 경각심을 보였다. …그것은 너무나 빠풀어지고 악의에 차 있어서… Hester는 그 애가 인간의 자식인지를 의심할 정도였다. …마력이 Pearl의 끊임없는 창조적 정신으로부터 나와, 마치 햇불이 원하는 모든 것에 불을 붙이듯 삼라만상에 의미를 주었다. …Pearl을 바라보다 Hester는 가끔 무릎위에 일감을 떨어뜨리고 고뇌에 찬 목소리로 외쳐댔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나의 주라면, 내가 낳은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18세기 합리주의는 인식상의 “순수이성”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청교도들의 신중심의 비극적 세계관을 변모시켜 놓았다. 그들은 “믿음”보다는 “경험”과 “이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식의 주체를 인간의적인 것으로부터 인간 이성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그들은 형이하학적인 물질적 자아를 인식의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우주의 생성 소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와 Locke의 “*tabula rasa*”로 표현되는 인식논리는 인식의 한계를—인식방법에 있어서 그들의 서로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물질적 자아의 분석적 경험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합리주의자들은 신의 섭리도 무한하고 다양한 자연계의 “이성적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터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추론에 의해 인간의 능동적 참여없이도 신은 정당하고 우주는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Pope의 “*Essay on Man*”의 한 구절은 18세기 합리주의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요약한다.

자연은 그대가 알지 못하는 예술,
우주는 그대가 보지 못하는 섭리,
혼란은 그대가 이해 못하는 조화,
일부가 악해 보여도 전체는 선하다.
오만이 있고 이성이 오류를 범해도,
진리는 명백하니 존재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

미국의 유니테리언들은 합리주의적 방법으로 신을 경험하고 설명하려 함으로써 원죄로 인한 자유의지의 상실, 영원한 저주, “예정,” 대속등의 청교도 교리들을 재해석했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주의자들처럼 “순수이성”의 한계에 부딪쳐, 생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 아래 인용되는 Jones Very의 소네트 한 구절에서 보듯이, 유니테리언들은 인간의 구원은 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며, 모든 영혼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7) Descartes와 Locke는 인식방법에 있어서 자기 “연역법”과 “귀납법”을 사용하여 서로 반대방향에서 인간의 인식행위에 접근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가 인간이성의 범위를 “분석”과 “판단”에 한 정함으로써, “분석”과 “판단”에 의해서 얻어진 일반적·기계적 원리를 그 이면에 작용하는 도덕적·선형적 정신과 연결시키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사용한 “이성”의 개념을 광의의 의미에서 순수이성”으로 묶을 수 있다.

그 출생이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모든 영혼에게는
 가이없는 유산이 자유롭게 물려진 것이니,
 이 광활한 지구의 풍요와 아름다움,
 그리고 별이 총총한 하늘의 빛나는 영광들이 그것이다.

(“The Soul’s Opportunities,” *Collected Poems*, 266)

그러나 유니테리언들의 신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성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신의 계획은 엄청나고 거대하다. 그들은 인간의 신에 대한 절대적 중속을 완화했을 뿐 청교도 신학자들이 설교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주와 자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니테리언이즘이 의심할 바 없이 청교도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말라빠진 합리주의”만은 아니라 하더라도,⁸⁾ Emerson의 말처럼 “시체같이 차거운” 일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신은 길을 인도하고 인간은 그 길을 찾아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정신력을 결하고 있으므로 맹목적 믿음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질서에 동참하는 역동적 힘을 결하고 있으므로 내재력 보다는 외재력에 의존해서 자아를 정립하고, 자아와 외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인용되는 Jones Very의 소네트의 일절에서 보듯이 자연은 무한한 재생력을 갖고 있으나 인간은 감응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진리와 심미적 쾌락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을 깨닫지 못한다.

자연이여,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감으로 얻어진 말의 힘보다 더욱 심오하다.

(“Nature,” *Collected Poems*, 69)

[자연은] 인간이 재생하리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지극히 암시적으로가 아니면.

(“The Cemetery,” *Collected Poems*, 290)

18세기 합리주의가 청교도의 “광기”(enthusiasm)를 “순수이성”으로 잠재웠을 때 남은 것은 이성과 감성의 인간능력을 모두 좁히는 독단이었다. 합리주의자들은 은유와 상상으로 사고에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신화를 창조하는 통합력을 감성으로부터 빼앗으면서 청교도의 “정열”을 물질에 대한 강한 욕구로 변모시켰고, 그 결과 노예소유제도, 중우민주주의, 인간성의 기계화 등의 사회악들을 창출했다.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이 만든 “순수이성”의 사슬에 묶여 있기를 거부했다. Emerson, Thoreau, Whitman 같은 미국 낭만주의자들도 대륙의 낭만주의와 이상주의 철학에 힘입어 완전히 새로운 슬어로 우주질서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인간형을 창조하려 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미국인 학자”는 지나간 시

8) Daniel Walker Howe, *The Unitarian Conscience: Harvard Moral Philosophy, 1805~186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p. 151-73.

대의 역사가 제공하는 모든 역사적 결정인자들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인식능력을 확대하여 자기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는 “능동적” 자아의⁹⁾ 소유자였다.

III

Emerson은 미국문학사상 기존의 관념체계에 가장 심각하게 속박을 느끼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가 몸담으려 했던 “시체같이 차거운” 유니테리언 교회는 청교도 주의의 원죄와 신의 응보의 늪에서 인간을 구해내는데 성공했으나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합리주의와 산업사회의 발달로 종교적·도덕적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청교도의 도덕적 이상들——성실, 순결, 용기, 천국에의 집념등——도 함께 무너졌다. 인간을 왜소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서, Emerson은 모든 인간의 지성과 덕성을 포섭하고 활용하는 이상적 인간형의 창조를 꿈꾸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수필과 강연에서 반항적·창조적 자아로 구현되었다.

우리의 시대는 추억을 먹고 산다. 그것은 조상들의 무덤을 건설하고 전기와 역사와 비평을 쓴다. 미래의 세대들은 그들의 눈을 부릅뜨고 신과 자연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우주와의 독창적인 관계를 향유해서는 안되는가? 왜 우리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시와 철학, 우리에게 직접 현현된 종교를 가져서는 안되는가?

(Nature)

위에 인용된 Nature의 일절은 Emerson이 역사가 처방해 놓은 인식의 근거를 파괴함으로써 생각하는 정신의 해방을 추구하여 “추억을 먹고 사는” 소극적 자아가 아닌 “우주와의 독창적 관계를 향유하는” 적극적 자아를 창조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Emerson은 유럽 낭만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특히 Coleridge와 Kant——로부터 자아가 어떻게 인식상의 능동성을 획득하게 되는가를 배웠다. 즉 Kant의 “선행론”과 Coleridge의 상상력 이론은 인간은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는 “선행적”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힘은 조각난 경험들을 통합시켜 “이성적”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인간이 터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¹⁰⁾ Coleridge와 Kant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정신적으로 그들을 만나기 이전 Emerson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William Ellery Channing의 신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교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혁신적인 유니테리언이었던 Channing은 그의 설교에서 신은 자연속에 스스로 현현되며, 그신은 원

9)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Richard Poirier, *The Performing Self: Compositions and Decompositions in the Language of Contemporary Life*(New York: Oxford Uni., 1971)를 참조.

10) Coleridge의 영향에 관해서는 Linden Peach, *British Influence on the Birth of American Literature*(London: Macmillan, 1982), pp. 58-78을 참조. Kant의 영향에 관해서는 Donald N. Koster, *Transcendentalism in America*(Boston: Twayne Publishers, 1975), pp. 5-12을 참조.

초적으로 선하고, 이는 분석적인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직관”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연약한 들꽃에서, 영속하는 별들에 이르기까지의 삼라만상에서 신을 분별한다. 심지어 파조물들 위에 걸쳐 있는 저 검은 구름같은 악 속에서도, 빛과 희망을 구별하고, 고통과 유혹 속에서 지혜와 사랑의 고결한 목적이 있었음을 점차 알게 되는 것이다.¹¹⁾

Emerson의 반항적 자아가 직관의 선형적 힘으로 고결한 삶을 추구하는 낙천적 세계관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청교도의 도덕적 이상주의 뿐아니라, Kant, Coleridge, Channing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merson의 자아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능동적” 속성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유럽대륙이 낳은 “초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Emerson의 독창성은, Albert Gelphi가 *The Tenth Muse: The Psyche of the American Poet*에서¹²⁾ 암시하듯이 미국인의 집단무의식을 탐구하여 그들의 원시적 생명력(Jung의 심리학에서 animus 또는 anima)을 회복함으로써 개체성을 추구하려 했다는 데에 있다. 그는 청교도의 후예로서, 그들의 해묵은 습성에 따라 외계의 모든 사물들을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신과 인간의 능동적·유기적 관계를 수립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삼라만상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변형력 있는” 자아를 창조했다.

나는 투명한 눈동자로 변했다. 나는 무이며 전부다. 보편적 존재(The Universal Being)의 흐름이 나를 관류하고 나는 신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James McIntosh가 그의 논문 “Emerson’s Unmoored Self”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Emerson의 자아의 이러한 변형력은 Wordsworth, Carlyle, Goethe, Swedenborg, Coleridge같은 유럽 어느 낭만주의자나, Channing, Brownson같은 미국의 어느 동시대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¹³⁾ Whitman과 Thoreau의 반항적·창조적 자아들에게 전수되는 Emerson적 자아의 특징이며, 미국 낭만주의 초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Emerson의 자아는 역사와, 역사에 의해 주어진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자기의 직관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주의 본질을 터득하려 함으로써 변신을 시작한다. 그의 초기시 “Good-Bye, Proud World”는 습관적 인식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역사에 대한 고별시이다.

11) R.W.B. Lewis, et al., *The Making and The Makers*, Vol. 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3), p. 673.

12) Albert Gelphi, *The Tenth Muse: The Psyche of the American Poet*(Cambridge: Harvard Uni., 1951), p. 81.

13) James McIntosh, “Emerson’s Unmoored Self,” in *Yale Review*, Vol. 65(Winter, 1976), pp. 232-3.

오만한 세상이어 잘 있거라. 나는 내 보금자리를 찾는다.
 그대는 내 지우(知友)가 아니며, 나 또한 그대의 지우가 아니다…
 오 내가 산천에 묻혀 편안함을 느낄 때
 나는 그리이스와 로마의 오만을 던고 서서…
 축적된 인간의 지식과 오만을 비웃노라.
 패변을 일삼는 철학자들과, 학식있는 족속들도 비웃노라.
 인간이 초목과의 교감으로 신을 만날 때
 교만으로 가득찬 그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Emerson은 역사적·철학적 관념의 껍질들이 직관적 사고와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적 인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추상적 관념의 총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움직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천재성을 가졌기에… 우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진보적으로 절서를 찾는 하나의 방편이다. 경험을 선택하는 원칙이라고나 할까.… 그는 부목(浮木)을 건지기 위해 해변에서 강까지 쳐놓은 방재(防材)와 같다.… 이유도 모르게 그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사실들, 말들,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을 뿐 이유가 명확한 것 못지 않게 그와 절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은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로는 인간의식의 그 영역을 설명할 수 없어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될 때 중요한 상징들이다.…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문학에서 보다 혼란 예와 사실들을 찾아라. 너의 심장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위대한 것이다. 영혼은 늘 옳은 것을 강조한다.

(“Spiritual Laws”)

위에 인용된 “Spiritual Laws”의 한 문단에서 보듯이, 기존의 인식체계에 존재하던 이성 과 감성의 위계가 무너지고, 감성이 경험을 선택하고, 빼고, 경험속으로 유입되었다 가는 빠져나오고, 부풀었다 가는 오그라 들고 함으로써 능동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Emerson의 창조된 자아는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을 동등한 인식상의 능력으로 갖게 되고 내재하는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Emerson에게는 “구원”이란 인간성에 내재한 창조정신과 감성의 잃어버렸던 인식상의 지위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영혼”은 이러한 감성과 선형적 지식을 소유하는 인간정신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대영혼”(Oversoul)은 이러한 영혼들의 총체이고, “자연”은 “영혼”을 “대영혼”으로 연결시키는 상징들이다.

이 세계를 원초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보게되는 공허한 폐허는 우리들의 눈속에 자리하는 것이다. …세계가 결국을 결하고 부서져 폐허로 남게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 자신과 분리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Nature)

인간이 그의 “근시안”(opthalmia)을 치료하면, 즉 그의 영혼이 감응력과 선형적 지식을 회복하면, 사물을 꿰뚫고 흠어진 상념들을 통합하는 힘—Coleridge의 “esemplastic power”

와 유사한 힘——은 단지 통합에서 그치지 않고 온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변형시키게 된다.

너무나 빨리 모든 불유쾌한 것이 사라진다. 패지나 거미, 뱀이나 독충들, 광란하는 쥐새끼들, 감옥, 원수들도 사라진다. 그들은 일시적이며 더 이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Emerson은 “The American Scholar”와 “The Poet”에서 그의 창조적·반항적 자아에게 능동적 변형력을 갖게하여 구체적 형상을 부여한다. Oliver Wendell Holmes가 미국의 문화적 독립선언이라고 칭송했던 “The American Scholar”에서, Emerson은 그의 창조된 자아에게 가장 훌륭했던 문명들이 형성해놓은 관념의 껍질을 깨뜨리고 미국의 자연과 동료 미국인들의 원시적 생명력과의 교감으로 “현재”에 스스로 담겨있는 의미를 노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의식의 혁명”을 계속한다.

인간은 하나의 물건 아니면 많은 물건들로 진락한다. 썩부리는 사람은 농장을 경영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농부가 되고 영혼은 돈에 예속된다. 성직자는 마음이 없는 형상이 되고, 법률가는 법률적 지식을 담고 있는 생명력 없는 법전이 된다. … 이러한 기능의 분배에 있어서 학자는 지식인의 대표 자일 뿐이다. 정상적으로 그는 “생각하는 인간”(Man Thinking)이어야 한다. 타락된 상태에서는 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에 불과하다.

(“The American Scholar”)

만약 다른 무엇보다 그의 귀를 깨우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전부라는 것이다. 너 자신 속에 자연의 모든 법칙이 담겨 있다. 그러나 너는 아직 어떻게 한방울의 수액이 오르느지를 모른다. 너의 몸속에 전 우주의 이성¹⁴⁾ 잠들고 있다. …미국인 학자는, 발현될 준비가 되어 원시의 상태로 내재하는 온갖 욕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유럽의 귀족적 시신(詩神)에 귀를 기울여 왔다. 미국 자유인의 정신은 이미 혼탁하고, 모방적이고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적·사적 탐욕이 우리들이 숨쉬는 공기를 탁하게 했고, 학자는 예절바르고, 무기력하고 고분고분하다. 이 나라의 정신은 용렬한 목적에 바쳐지도록 가르쳐져, 그 스스로를 먹고 산다.

(“The American Scholar”)

Emerson이 구상했던 “미국인 학자”는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그가 미국대륙에서 얻은 새롭고 이름없는 경험들을 자양분으로 빨아들이고, 명명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롭고 용감하며 창조성과 영감과 의지력을 가진 “초인”이다. 그는 원시상태로 내재하는 “전 우주의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자연법칙”을 담은 소우주로 신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것을 통합하고 변형시키는 “이성”의 힘으로 “대영혼”에 포섭된다.

“The Poet”에서 Emerson은 초인의 창조를 완성한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그는 “설교하는 자” 또는 “말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

14) 원어는 “The whole of reason.” 여기에서 Emerson의 “이성”의 개념은 Coleridge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적 판단에 의한 원칙을 도출하는 힘이 아니라 그 원칙을 움직이는 “우주의 정신”을 인식하여 개개의 일반화된 원칙들을 통합하는 힘이다.

표자"이어야 한다. "시인"은 미완성의 인간 가운데 서있는 완성된 인간이며 "그의 부(지식) 뿐 아니라 전인간이 공유하는 부(지식)"를 미완성의 인간에게 전하여 그를 완성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시인"은 그의 정신속에 깃들어 있는 상상·직관·통합하는 힘을 개발함으로써 이 일을 해내고, 그의 시는 계시를 주고, 묶여 있던 영혼을 해방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의미를 터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세계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 혹은 세계들의 나머지 전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The Poet”)

Emerson의 “시인”은 고양된 의식의 소유자로서 타락 이전의 아담이 가졌던 변신·변형의 탄력성과 능동적 인식능력을 가지고 구대륙의 문화적 전통과 청교도 교리의 비극적 세계관, 유니테리언리즘의 소극적 자아를 모두 타파할 수 있는 초인간적 힘을 부여받음으로써 “의식의 혁명”을 완성한다. 1840년대 초 Emerson은 이러한 고양된 의식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음을 개탄하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¹⁵⁾ 그의 “의식의 혁명”은 Thoreau의 *Walden*과 Whitman의 *Leaves of Grass*에서 개화를 맞는다.

IV

원시적 생명력을 가진 Emerson적 자아는, Emerson을 뒤따르던 두 초월주의 거인들인 Thoreau와 Whitman에게서 구현되었다. Thoreau는 *Walden Pond*에서의 상징적 은둔생활을 통해, Whitman은 *Leaves of Grass*에서의 끊임없는 “언어의 실험”을 통해 분열 이전의 자아에로 탐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된 자아의 생명력으로 어떻게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청교도의 후예로서 미국을 “약속된 나라”라고 믿었던 Thoreau는 Emerson처럼 무의식적으로, “신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태초에 예정된 파멸을 피할 수 없다”¹⁶⁾ John H. Newman의 예지를 깨달았다. 그는 캘빈 교도들이 물려준 사악한 신을 피해 *Walden* 못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혼을 정화하는 여러가지 개인적 의식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굳은 존재의지를 보여주는 자연 속에 나타나는 신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Walden*의 첫 장 “Economy”는 청교도 문명의 유산 속에서 지치고 침울한 모습을 한 Thoreau의 그 문명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다. 이 장에서 Thoreau는 관념적 사고로 조건화된 동료 미국인들의 삶의 현장을 비판하고, 전인격의 분열과 그로 인한 인간 함몰의 무서운 환

15) R.W.B. Lewis, et al, *The Making and The Makers*, Vol. 1, p. 679.

16) recit. from Francis L. Kunkel, “The Theme of Sin and Grace in Graham Greene” in *Graham Greene: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ed. Robert O Evans (Lexington: Uni. of Kentucky, 1967), p. 53.

상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원시와의 만남은 자아분열을 예방하는 초인간적 자아의 창조행위임을 시사한다. Walden이라는 원시와 문명의 접경에서 움막을 짓고, 콩·감자·옥수수를 재배하며, 연못의 깊이를 잴으로써 태초의 인간의 생존의 몸짓을 재연하고, 기계문명이 가져온 도식화된 인간성과 무질서하나 무한한 가변성·가능성을 가진 자연을 대비시켜 속고해 보는 것은 문명·삶·원시·우주·신의 의미를 새롭게 터득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Concord 문명의 성격은 한마디로 인간성의 기계화로 규정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실수로, 조잡한 근심과 과도한 노동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들의 손가락은 심한 노동으로 험해져 너무 떨기에 참다운 삶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로 노동자는 훌륭한 인격을 도야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인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그의 노동은 시장에서 평가절하된다. 그는 곧 기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Economy”)

수단을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가 유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즉 정신이 그것을 대처하기에 충분할만큼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목적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Thoreau는 여러가지 기계류의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문명의 성격을 표현한다.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 대한 적절한 상징물이었던 “시계”는 여기에서 물개성적 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바뀌고,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인간의 사고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관념에 종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인식을 조건화하고 사고의 영역을 좁히는 기계문명의 이미지는 *Walden*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제 3장의 “Reading”과 제 4장의 “Sound”의 병치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책속의 글은 은유이며, 죽은 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굴절시켜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소리는 스스로의 미를 생성시킬 뿐아니라 사물 그 자체와 일치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문명화로 둔화되지 않은 감각만이 이러한 절대적 의미를 전수할 비결을 갖고 있다. Riverside판 *Walden*의 서문에서 Sherman Paul이 지적했듯이, Thoreau는 원시와 접하여 감각을 예리하게 함으로써 “사물의 노예”가 아닌 “창조의 주체”가 되고자 했다.¹⁷⁾ *Walden*의 전과정은 바로 이 감각을 도야하는 과정이며, Thoreau가 “소나무와 윗나무 숲속에서 외로이 앉아 무아경에 젖어” 있었던 자신의 여름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Emerson의 “시인”처럼 그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명인은 “Concord에서처럼 시계의 제각거리는 소리에 안달하지 않아도 되고,” 기계적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기계문명 전체를 자기의 의식의 영역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oreau는 계속해서 감각의 부활이 자아로 하여금 어떻게 시간과 역사의 구속을 벗어나

17) Sherman Paul ed., *Walden*(Boston: Houghton Mifflin, 1960), p. 15.

게 하고 기계문명을 자연에 동화시키는 가를 보여준다. 제 4 장의 “Sound”에서, 처음 Thoreau가 Walden Pond에서 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철길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길이 우리위를 달리고 있다”고 느꼈고, 기차는 탐욕스런 매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자동적·기계적 울동으로 인간 소유욕의 표상이 된다.

농부의 뜰 위를 나르는 매의 비명소리처럼 들리는 기계소리는 내게 초조한 도시상인들이 도시의 권역으로 몰려 들어감을 알려주며, 여름 겨울할 것 없이 숲을 관통한다. ... 인디언의 월굴나무 둔덕은 황무지가 되고, 모든 년출월굴도 꺾혀 모아져 도시로 간다.

그러나 Thoreau가 감각의 정화작용을 거쳐 자연속에서의 철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Concord의 숲을 가로지르는 기차는 시각적·청각적으로 인식되고, 매가 원을 그리고, 산비둘기가 돌진하며, 한마리의 멍크가 몰래 숲을 빠져 나올 때, 바로 거대한 자연의 유기적 조직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자연과 문명의 연결고리로서 원시의 문을 두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시로부터 문명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Thoreau는 확대된 의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 고리에 의해 사회와 연결되는군” 하고 소리친다.

Leo Marx가 *The Machine in the Garden*이라는 책의 “Two Kingdoms of Force” 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Thoreau의 Walden 행은 단순히 Concord의 문명을 버리고 Walden의 자연을 택하는 “목가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¹⁸⁾ “Bean-Field”장과 “The Pond”장에서 보듯이, 콩밭에서 콩을 기르고 호수가를 돌아다닐 때의 Thoreau는 목가 속의 목동과는 달리, 감각을 정화하고, 정신을 수련하며, 마음을 넓혀 기계문명의 거대한 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반복되는 단순한 노동에 목동들이 얻었던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그것은 “의식의 혁명” 없이는 문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편협하고 탐욕스런 심성을 길러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자연을 밀착시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콩의 생명력 뒤에 숨어있는, 자기의 의식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임을 알게 된다.

“그들이[콩들이] 나를 흙에 닿게 했어, 그래서 나는 Autaeus처럼 힘을 얻게 되었어.”

(“Bean-Field”)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은 “The Pond” 장에서 Walden 호수물의 높은 도덕성을 가진 신통력을 발견함으로써 확대된다. 때로는 푸르고, 때로는 녹색이며, 때로는 유리알같이 맑아 형용하기 어려운 Walden의 물은 “경험”과 “이성”으로 구겨진 Thoreau의 감성에 새로운 힘의 원리를 보여주어 “Higher Laws” 장에서 마침내 그 원리를 일반화 할 수 있게 한다. 즉 우주는 동물성과 신성(higher nature)의 두힘의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소우주인 “인간은

18) Leo Marx, “Two Kingdoms of Force,” in his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New York: Oxford, 1964), pp. 255-6.

내재한 동물성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동물성이] 발현되면 비례해서 신성은 잠자게 된다.” 수동적 인간이성의 피조물인 기계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미국인의 숙명을 만들었지만”——“We have constructed a fate”—— Thoreau의 실험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신성을 발현시킴으로써 이 숙명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이 자연에 입힌 깊은 상처는 “Spring”장에 와서 상징적으로 치유되고, 초인 Thoreau는 재생력을 회복한다. Concord에서의 시간의 진행을 벗어나 자연계의 삶의 궤도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는 매번 찾아오는 봄처럼 재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길을 매몰하여 둔덕을 이루는 얼음조각과, 모래와, 진흙들, 그리고形形色색의 젖은 찌꺼기들이 미묘하게 조화되어 생명을 부활시킬 때, Thoreau의 감각은 원시의 상태로 감응력을 회복하여 자연의 생성 소멸작용에 동참한다. 모래는 단순한 모래이되 태양의 따뜻한 열기가 스며들면 그것은 “잎으로, 줄기로, 사슴의 발톱으로, 새들의 발가락으로, 핏줄로, 뇌로, 내장으로” 모양을 바꾸게 된다.

나는 지금 나와 이 세상을 만들었던 예술가의 실험실에서 있다. 내가 도달한 곳은 그가 아직도 창조를 계속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그는 이 제방둑을 움직이고, 힘이 남아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있다.

(“Spring”)

역사와 그것의 모든 결정인자들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된 Thoreau는 자연에 형상, 질서, 구조를 주는 섭리——“전우주는 끊임없이 그것을 초월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속으로 몰입된다.

Emerson의 초월이 이상주의자의 사고속의 것이라면 Thoreau의 그것은 굽힐줄 모르는 현실주의자의 행동의 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merson이 “The Young American”에서 “은나라가 정원이 되고 사람들은 천국의 정자나무 숲에서 자란다”고 한 예언에서 알 수 있듯이 Emerson에게서는 그가 추구하는 이상의 가치와 의미의 소재가 명료하지 않은 반면, Thoreau의 Walden의 실험에서는 그 가치와 의미의 소재가 명료하다. Thoreau는 삶의 높은 도덕성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사회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의식내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삶의 높은 도덕성은 분석적 경험에 의해서 건축되는 의식의 수동적 구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oreau가 Walden에서 보여주듯이 자연의 질서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유사성을 찾고,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인식을 확대하여 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다.

V

이 논문에는 Whitman의 *Leaves of Grass*가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Emerson, Thoreau,

Whitman이 창조한 “초인”의 신화는, 그들이 창조한 “초인”의 성격상, 유럽 낭만주의자들이 창조한 그것과 구별된다. Terence Diggory가 *Yeats and American Poetry*에서 간파했듯이 유럽 낭만주의 문학에서의 초인이 “예술적 자아표출이라는 낭만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창조된 것이고 인성의 통합력(imagination)과 연상력(association)에 의해 자연과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면,¹⁹⁾ Emerson, Thoreau, Whitman 문학에서의 초인은 그의 “능동적” 자아에 초인간적 변형력이 부여되어, 신비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초인”으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미국인 학자”는 유럽 낭만주의 문학의 초인들과 달리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창조되었고, 통합된 자아(integrated self)와의 결합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공동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미국인의 표상이며, Emerson 이후 미국문학 도처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형이 되었다.

19) Terence Diggory, *Yeats and American Poetry*(Princeton: Princeton Uni., 1983), p. 5.